

교|회|소|식

- *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 * 고 조삼남 집사님과 조정연 원로 사모님의 장례예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석하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 예배 후에 새 회계연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 * 남선교회 헌신예배는 준비 관계로 10월 5일로 연기합니다.
- * 교회 표어 : **“모이기를 힘쓰며, 흠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 * 새벽기도회, 금요 찬양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 * 각 구역장은 구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갈보리 한국학교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관 공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중식 친교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기념일 등)
- * 28일 주일을 교단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강사 : 조윤호 선교사)

주요행사안내

9월 14일(주)/ **예-결산 공동의회**
15일(월)-17일(목)/ **가주노회 정기회**
28일(주)/ 각 위원회 월례회

신도소식

출타-David/김선화 김형 김소연 조동원/정희 김성일/알비나 Grace Won

친교	금주/ 김대희 장로	다음주/ 김진수 집사 김명숙 집사	
헌화			
집 회 시 간		교 회 학 교	
주 일 예 배	오전 9:00 오전 11:00	유년부(주)	오전11:00
중보기도회	오전11:30(수)	학생부(주)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청년부(금)	저녁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장년부(주)	오전10:00

금주의 기도제목

1. 담임목사 및 교육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2. 비전센터(체육관,선교관) 건축을 위해
3. 교육관 증축을 위해
4.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5. 새벽제단의 부흥과 성도들의 온전한 주일성수를 위해
6. 라스베가스 복음화를 위해
7. 교육부서의 활성화를 위해
8. 한 주에 한 가정씩 전도를 위해
9. 환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의 선교지

총회 아르헨티나 파송선교사/ (장영호 선교사)- 여선교회
문서선교/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찬타임즈- 교회
멕시코 및 중남미(조윤호 선교사)- 남선교회
라틴 아메리카(김재학 선교사)- 교회
멕시코 바하칼리포니아(이흥기 선교사)- 여선교회
아프리카 케냐(이용호 선교사)- 교회
문서선교/크리스찬 타임즈- 교회
가주노회 후원 선교사 이인승(멕시코), 김진욱(캄보디아), 정진구- 교회
교육선교/베트남 Benny Jo(조준건 선교사)- 교회

♥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

미국의 찰리 패독이라는 유명한 올림픽 육상 선수가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기술고등학교에서 강연했다.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달 수 있는 연설이 끝나자 한 흑인 소년이 패독의 개인 코치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코치님, 저는 꿈을 가졌어요. 찰리 패독처럼 올림픽 선수가 꼭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코치가 말했다. "그래, 그것은 큰 꿈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의 꿈에 사다리를 놓아야 해. 그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는 결심이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란다. 두 번째는 헌신이고, 세 번째는 훈련,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이란다." 코치의 이 한 마디가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는 코치의 말대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되는 꿈을 갖고 그 꿈에 헌신하며 훈련했고 믿음을 가졌다. 당시에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천대받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는 열등감과 절망을 떨쳐 버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 갔다. 그 결과 그는 1936년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땀으며 그의 이름 '제시 오웬'을 명예의 전당에 새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놀랍고 부요함으로 넘친다. 혹시 삶이 바빠 풍성한 비전을 생각할 겨를 없이 하루하루 겨우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

2025년 09월 14일
45권 37호

2025년 표어
모이기를 힘쓰며 흠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담임 조 응 철 목사 Rev. John E. Jho

교회를 섬기는 일군들
교육목사/ 조의동
시무장로/ 김영만
명예전도사/ 김영자
파송선교사/ 조윤호
평신도선교사/ 최조이(중보기도, 의료)
찬양대 지휘/ 이해성
반 주/ 이해영 김수정
예배통역-Translation/ 조경혜
Sound Engineer 조경원 김소연 전진명

